수리안전답 없애고 모조리 천수답으로

(역대상 9:1~44)

1.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3.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오늘 말씀 중심으로<수리안전답 없애고 모조리 천수답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수리안전답 없애고 모조리 천수답으로'
본문에서는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4~6절까지는 유다의 자손, 7~9절까지 베냐민 자손의 명단이 나오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10~34절까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는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울과 요나단의 족보가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1994년에 가뭄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때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뭄을 극복하는데 특별히 공이 컸던 농민들, 민간봉사단체대표들, 일선공무원, 장병들 100명을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논은 75%가 수리안전답이고 25%가 천수답입니다. 그런데 25%나 되는 천수답을 논으로 계속 활용할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25%의 천수답은 논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 가능성을 모색해 봐야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안전답'이란 수리개발 사업을 통해서 관계시설을 확충하므로 전천후 벼농사에 지장이 없는 논을 말합니다. 반면에 '천수답'은 시냇물조차도 끌어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비에만 의존하여 농사를 짓는 논을 말합니다.
천수답은 하늘만 바라보는 다분히 미신적인 삶의 태도를 뜻하는 것처럼 비유됩니다. 반면에

수리안전답은 근본적이고 과학적으로 삶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상징으로 비유되는데,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을 전천후 안정적 삶으로 만들어 가자는 취지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님이셨는데 수리안전답으로 바꿀 수 있는 형편이 아닌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들은 이제 용도를 바꿔보자고 한 것인데 오늘 본문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정 근원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관계가 형성되고, 집 바깥에는 직장이 있고 자녀들은 학교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단체나 클럽들이 있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분화 될 수 있는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몇 퍼센트가 수리안전답이고 천수답이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 주례에서 “행복한 부부의 10계명” 같은 것을 듣는데 이것이 바로 수리안전답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부부관계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요.
천수답은 주어진 아내나 남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의 주체성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임을 믿고 감사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자녀 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자녀라는 영역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어 가려고 손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의 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자르는 것은 천수답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수리안전답을 모조리 제거하고 천수답으로 바꾸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1절 상반절에서는 이제까지 했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열왕기 뿐만이 아니라 사관들이 기록한 왕조실록이 있는데, 에스라는 이에 기초하여 족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 즉 “다윗의 왕위가 영속하리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메시아로 인해 성취될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시대 포로귀환자들의 사명은 메시아에게 도달하는 징검다리 역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마음이 메시아에게로 가서 오늘을 돌아보고 과거를 돌아보자, 그 메시아 복음의 사역이 지금과 과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족보를 통해 언급함으로써 선민과 복음의 관계가 현재에도 유효함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서는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라의 재건입니다.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께 이르는 징검다리 역할을 위해서 땅에서 이루어야 될 과제는 나라의 재건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정치 경제 군사 교육 건축 등의 제반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름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예루살렘이 중심되고 예루살

렘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본장 전체의 분위기는 성전에 종사하는 레위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을 구축함으로서 성전의 재건이 가능하도록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자들로 거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을 특별히 강조함으로써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로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전에 종사하는 자들만이 국가재건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삶을 위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의 국가체제 정비는 천수답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 나라 전체가 수리안전답이 아닌 천수답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바로 성전이고 그 성전을 통해서 선민나라 전체는 천수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백성이 게을렀기 때문도 아니고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창조와 혁신이 모자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므낫세 왕은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성신을 섬기는 우상 제단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세웠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이 므낫세 왕처럼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은 없었을 것인데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앗수르나 다른 이방 사람들도 자신들의 종교 시스템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합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지만,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우상숭배는 지금 우리들의 과학만큼이나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과 똑같은 풍요와 다산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그들 나름의 합리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와 혁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고 중국과 일본에 밀린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선민나라 전체의 영역이 천수답이 되어야만 했는데, 성전의 존재 의미가 망각되면서 인간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안정된 삶의 틀과 조건의 수리안전답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 의미는 전국에 흩어져 사는 모든 선민이 자기의 처소에서 성전의 존재 의미를 생활화 할 때에 삶은 천수답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미신 같고 하늘만 바라보는 막연한 삶의 태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역사와 생사화복의 주관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서처럼 참새 두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는 그물

의 한 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믿으면 나의 삶의 현장이 천수답이 되는 것이고 이는 곧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를 짓는 천수답은 하늘의 활동 무대입니다. 반면에 수리안전답은 인간의 활동 무대입니다.
오늘 역대기 말씀에 의하면 선민이 망하고 더 나아가 인간이 삶에서 실패와 좌절과 멸망을 겪는 이유는, 성전의 존재 의미를 생활화하여 삶을 천수답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기르면 됩니다. 내가 자녀를 만들어가려고 한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의 존재 의미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 곳곳에서 성전은 “내 이름을 두기 위하여 택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라는 노른자를 감싼 흰자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이름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존재를 가리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이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는 하늘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며, 그들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끝에 살든지 남쪽 끝에 살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에 품고 성전의 구성을 적용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성전 모습을 기억하며 마음속의 지성소에는 승진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들어오셔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진이 마음에 소원으로 자리 잡고 사장님께 잘 보이는 것이 소원으로 자리 잡는다면 이것이 번제단에서 죽어야 될 죄악 된 모습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성전의 존재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분향단의 기도가 의미하는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직장에서 다른 모든 동료들이 승진하고 월급 많이 받기를 원할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직장은 하나님에 의해 지배되는 천수답이 됩니다.
가족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싶어 할 때 그것이 잘못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배불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를 위해 성전의 번제단에서는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어린양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남편과의 관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되는 천수답이 되는 것입니다.
곳곳에 흩어져 살던 모든 선민들이 성전의 존재 의미를 생활화함으로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려고 할 때에 이 땅의 삶의 현장은 천수답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알

이나 아세라 숭배라는 첨단의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서 이 땅에서의 안정된 삶의 조건을 스스로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가 앞으로 기록 할 모든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성전의 완성은 메시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곧 이 땅에서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들에 대한 죽음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전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번제단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던 마음이 죽고,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떡상이 의미하는바 하나님으로 배부름을 얻고, 등대가 의미하는바 하나님이 주시는 옳고 그름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번제를 오늘날로 가져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삶은 천수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삶의 현장이 천수답으로 바뀐다면 그 천수답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바로 에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대로만 사는 원형이 에덴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창조와 혁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농사짓기에 문제가 없는 전천후의 안정된 삶이기를 바라며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이 꼬이고 버거워지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날 때에도 십자가를 보고 죽으세요. 자녀라는 영역이 천수답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이끌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하는 기도는 자녀들이 갖고 있는 삶의 영역의 모든 부분들이 나처럼 천수답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혼 취직 진학문제 등이 모두 천수답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업장을 천수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만족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에 깜짝 놀라야 합니다. 나는 사업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만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가 죄인임을 알고 번제단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아버지와 주님의 교제에 참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도 주님처럼 아버지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장에서 추구할 때에 직장은 천수답이 되고, 사업장에서 추구할 때에 사업장은 천수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업에 종지부를 찍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각오가 필요합니다. 내 눈 앞에 천수답으로서의 사업, 남편과 아내, 자녀, 직장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서 전개되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믿으며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의 족보가 다시 반복되는 이유는 앞에서의 이유와는 다릅니다. 사울은 통일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는데 포로로 잡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이야기 뒤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앞으로 역대기에서 서술되는 모든 역사가 성전의 존재 의미와 관련되어 풀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서술 기준은 성전에 대한 태도입니다. 성전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듦으로서 내 삶의 현장을 100% 천수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은 정말로 조심스럽고 다사다난한 변수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천수답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웃으면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